

“절대 악 등장” ‘무법변호사’ 단숨에 6%대 돌파



‘무법변호사’ 속 베일에 싸여 있던 이준기, 서예지, 이해영, 최민수의 관계가 밝혀져 안방극장을 충격에 빠지게 했다. 이준기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 서예지의 실종된 어머니라는 사실과 인정한 미소가 매력적인 기성의 마더 테레사 이해영의 섬뜩한 두 얼굴이 공개됐다. 이와 함께 검은 탐욕, 기성 시장 살인 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진실, 다양한 욕망들의 충돌이 시청자들을 브라운관에서 한시도 땀 수 없게 만들었다.

배우들 연기 호흡·직진 전개·웃음 포인트 등 극의 몰입도 높여 블랙홀 드라마의 면모 발휘

이들 위성, IPTV를 포함한 유료플랫폼 전국 가구 기준 평균 6.0%, 최고 6.9%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케이블 종편 포함 동 시간대 1위의 기록이다.

‘무법변호사’ 2회에서는 봉상필(이준기 분)이 기성 시장 살인범으로 기소된 전직 형사 우형만(이대연 분)의 변호를 위임받는 것은 물론 자신의 모친 최진애(신은정 분) 죽음의 배후에 있는 기성지배권 차문숙(이혜영 분)에게 짜릿한 선전포고를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특히 18년 전 위기에 처한 봉상필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 하재이(서예지 분)의 모친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 봉상필과 하재이가 과거에서부터 시작된 사실과 낯설지만 유인 관계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드러낸 것. 이에 봉상필이 하재이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를 그림자처럼 지켜야만 하는 이유가 공개된 가운데 앞으로 두 사람이 ‘절대 악’을 상대로 보여줄 뜨거운 활약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그런 가운데 이날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단연코 청룡백학인 성품을 가진 ‘기성의 마더 테레사’ 이해영의 섬뜩한 두 얼굴이었다. 외적으로는 법조계의 존경을 받

었다. 그도 그럴 것이 봉상필이 우형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 의문의 여인이 하재이 모친이었던 것. 전직 형사 우형만과 그의 뒤를 따르던 어시장 강태 안오주, 우형만의 담당 변호사였던 고인두와 검은 세력의 선봉에 우뚝 서 있는 향판 차문숙, 네 사람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붕괴 터지듯 드러난 가운데 과연 하재이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차문숙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증을 한층 높였다.

‘무법변호사’ 말미 이수리(정지민)가 차문숙의 법정을 위풍당당하게 들어선 채 “재판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라며 화끈하게 선전포고하는 봉상필의 모습이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자신의 모친을 죽인 안오주와 그에게 살해를 지시한 차문숙을 저지하기 위한 봉상필과 하재이의 진짜 공조가 시작된 가운데 이들이 철옹성 같은 차문숙 세력을 무너트릴 수 있을지, 이들의 반격에 차문숙과 안오주는 어떻게 반격할지 벌써부터 향후 스토리에 대한 궁금증을 상승시켰다.

이처럼 봉상필에서 안오주까지 얽히고 설킨 악연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전개와 함께 오픈된 가운데 이를 연기하는 네 배우의 강렬한 존재감과 쏠쏠한 연기 호흡이 선사하는 팽팽한 긴장감이 안방극장을 압도했다.

특히 이준기는 이대연을 협박하

日 정부에 맞선 여성 5인... ‘히스토리’ 6월 말 개봉 확정



6년 동안 일본 정부에 맞선 할머니들의 관부 재판 실화 소재

충무로 여성 배우들이 봉진 영화 ‘히스토리’가 오는 6월 말 개봉을 확정하고 런칭 포스터 2종을 공개했다.

‘히스토리’는 1992년부터 1998년까지 6년 동안 오직 본인들만의 노력으로 일본 정부에 당당히 맞선 할머니들과 그들을 위해 함께 싸웠던 사람들의 뜨거운 이야기다. 당시 일본 열도를 발각 뒤집을 만큼 유의미한 결과를 이뤄냈음에도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관부 재판’ 실화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내 아내의 모든 것’,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등의 연출을 맡았던 민규동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끝없이 대두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논쟁에서도

단 배정길(김혜숙 분), 박순녀(예수정 분), 서귀순(문숙 분), 이옥주(이윤나 분), 그리고 변호사 이상일(김준환 분)의 모습을 담아 눈길을 모은다.

‘관부 재판을 아십니까?’라는 카피를 담은 포스터는 영화의 소재인 관부 재판과 스토리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바라보는 원고단의 눈빛은 이들의 당당하고도 간절한 의지를 담았다.

‘일본 열도를 발각 뒤집은 우리는 국가대표였다’라는 카피의 포스터는 일본 정부에 맞서 맨 몸으로 부딪혀야 했던 원고단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예고하고, 환하게 웃는 모습은 이들이 이뤄낸 값진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담았다.

‘히스토리’는 지난 8일에 개최된 제7회 한국제영화제 현장에서 상영된 이후 전세계 바이어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고 마켓 상영 당시 빈 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객석을 가득 메우며 높은 관심을 입증한 ‘히스토리’는 모든 관객이 끝까지 자리를 뜨지 못할 정도로 집중도 높은 분위기 속에서 상영이 진행됐다. 특히 아시아권, 중화권 관계자들의 경우 상영 후에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공감 어린 극찬을 전했다는 후문이 다.

‘효리네 민박2’, 눈물로 완성된 ‘제주도 힐링 타임’



JTBC 예능프로그램 ‘효리네 민박 2’가 종영했다.

지난 13일 오후 방송된 ‘효리네 민박 2’에서는 이상순, 이효리 부부와 윤이의 마지막 민박집 영업 정면이 전파를 탔다.

1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효리와 이상순, 윤이는 많은 손님들을 부속객으로 만나며 일상의 솔직한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줬다.

특히 시즌 2 민박 직원으로 낙점된 윤이는 나름의 부담도 있었을 터. 하지만 윤이는 씩씩하고 매력적인 행동들로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방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날 이효리와 윤이는 한라산을 함께 등반하며 추억을 남겼다.

윤이는 이효리의 ‘언니한테 못한 얘기 없나?’라는 질문에 “너무 형식적으로 들리진 않을까 싶어서 말을 못하겠더라. 선배가 아니라 친한 동네 언니처럼 대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라고 어렵게 말을 꺼냈다. 이에 이효리는 “그런 건 지주 표현할수록 좋은 것”이라며 훈훈함을 지어냈다.

이효리, 이상순 부부와 윤이의 조화는 시청자들에게 편안하면서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세 사람 조합 속에 잠깐이나마 출연했던 배우 박보검의 합류도 시청자들로부터 하이라이트를 짓게 만들었다.

이날 이효리, 이상순 부부는 누구보다 힘들었을 윤이민을 위해 만든 특별한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이에 윤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동하기도 했다.

이효리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상순은 “마음 이편하게 호평을 받으며 방송을 마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단조롭게 사는 거”라고 덧붙였다. 윤이는 “너무나도 평범한 것들이 내겐 반대로 특별한 느낌이었다”라고 촬영 소감을 전했다.

이로써 이효리, 이상순 부부와 윤이의 민박집 영업은 모두 종료됐다. 매 시즌 잔잔한 감동으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빼앗은 ‘효리네 민박’의 행보에 벌써부터 기대가 쏠린다.



오늘의 운세 2018년 5월 15일 화요일 (음력 4월 1일)

<p>▶ 쥐띠 너무 인정에 끌려 자기 사업을 망칠 우려가 있다.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내 건강을 지켜야 할 때다. 내게는 아무런 소득이 없고, 피로만 남을 뿐이다. 3, 7, 9월생 애정은 갈등이 심할 듯하다.</p> <p>▶ 돼띠 자신이 처한 위치를 잘 가능해 보여 일을 벌여야 한다. 괜히 남에게 오해받을 운세이니 주변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조심하라. 2, 5, 9월생은 잡으라. 능력 있는 자이니 조언을 받아 투자하는 것이 좋다.</p> <p>▶ 호랑띠 두둑한 배짱이 필요한 때다. 박력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한여이 미루다 천정배필도 농칠까 염려된다. 동업하는 사업자도 용기를 가지라. 의견이 일치하니 순조롭구나. 1, 4, 11월생 지나치게 신경 쓰면 건강에 지장을 초래한다.</p> <p>▶ 토끼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에 과욕을 부리지 말고 침착하게 매사를 진행하라. 결과적으로는 본인에게 득이 된다. 3, 7, 9월생 부부간 진행하는 일을 함께 의논해 결정하면 대길하다.</p>	<p>▶ 용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스타가 돼 있더라’는 기적 같은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계획한 일을 성실히 진행해 타인이 좋게 평가할 듯하다. 허튼 짓은 그만두고 가정에 충실하라.</p> <p>▶ 닭띠 인고의 세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 진실한 태도로 대인관계를 원만히 유도하라. 감언이설을 조심하고, 항상 중심을 지킨다면 당신은 승리한다. 북, 동쪽에서 돕는다.</p> <p>▶ 양띠 생각지도 않은 일로 지출이 많겠다. 내 돈을 쓰기도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 신중히 처신하라. 마음에도 없는 언어와 행동으로 하루하루 지내니 답답한 심정이다. 시작하는 것은 빠른수록 좋겠다.</p> <p>▶ 원숭이띠 부지런하고 성실하니 주위 사람들에게 찬사도 듣고, 도움도 받겠다. 하지만 지금은 힘겨워 어디론가 피하고 싶은 심정이나. 그, 나, 흥 성씨 건강을 지켜야 할 때다. 애정은 눈치만 살피지 말고, 자신 있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라.</p>	<p>▶ 물총새띠 마음속에 담은 어려운 일은 빨리 처리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한 가지 일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라. 시간이 악임을 알아야 한다. 1, 9, 11월생은 사, 오, 2 성씨를 믿는 것은 좋으나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은 피하라.</p> <p>▶ 닭띠 꽃은 향기가 있어야 하며,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안 되면 되게 하는 것이 인간의 힘이다. 그대는 능력이 충분하다. 나를 강하게 채찍질하자. 그, 2, 흥 성씨는 공짜가 생기는 운세이나 단속을 잘 해야 한다.</p> <p>▶ 개띠 벌여놓은 일이 신경 쓰이는 날이다. 서, 남쪽에서 부담되는 소식이 온다. 서쪽 사업에는 바람이 분다. 북쪽 사람은 잔소리하는 날이다. 근신하는 것이 당신에게 이롭다. 4, 7, 11월생의 비위를 상하게 하면 안 된다. 훗날 힘이 돼준다.</p> <p>▶ 돼띠 집안에 경사가 있다. 신혼이면 기다리던 임신이 될 밤이니 운치 있는 곳으로 분위기를 바꿔보자. 신혼의 단꿈이 영글겠다. 먼 곳은 가지 말고, 차 조심하라. 3, 7, 9월생은 오늘이 행운의 날이다.</p>
--	--	---